

멀리 봄을 향해 걸어가고픈 2월 걷기 여행길

2월은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을 준비를 하는 달이다. 특히 울겨울은 유난히 혹독해서인지 동장군의 기세가 조금이라도 주춤하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 아직 가을가물한 봄의 여신의 숨결을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월을 맞아 '걷기 여행길' 8곳을 추천했다. 주말이나 오는 15~18일 설 연휴에 가족, 친구 그리고 연인과 함께 걸어보자. 다만 날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면 중국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니 미세먼지 농도를 꼼꼼히 체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이제는 유난스러운 것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다.

◆ 물소리길 4코스 (경기 양평군)

길은 평평잡한 추음산 아래 흑천을 따라 동서로 흐른다. 경의·중앙선 원덕역에서 용문역에 이르는 그리 길지 않은 이 길엔 논두렁과 철길, 구판장 등이 있는 마을부터 레일바이크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다.

조선 시대 제7대 세조(1417~1468), 중기 문신 송강 정철(1536~1593) 등이 걸던 유서 깊은 길로 임금이 행차 중 마셨다는 어수불의 흔적이 남아 있다.

추음산 아래 들뜬 겨울 딸기 재배지로 한겨울 비닐하우스 안에서 딸기 수확 체험을 해볼 수 있다. (양평군청 기획전략과 031-770-2066)

▷ 경로 : 원덕역~원덕2리 마을회관~별내 체험마을~삼성1리 마을회관~용문삼성로 20번길~수진원 농장~백산교~삼성3리 마을회관~용문 공공 하수 처리장~다문8리 마을회관~용문역
▷ 거리 6.2km 소요 2시간 난이도 보통

◆ 차탄천 에움길 차탄천 주상절리 트레킹 코스(경기 연천군)

차탄교에서 출발해 은대리성을 만나기까지 길은 차탄천 협곡을 따라 주상절리 명소들을 두루 거친다.

평탄하며 단순하다. 그러나 주변 풍광은 감탄할 정도다. 길은 차탄천을 넘나들며 새로운 풍광을 펼쳐 놓는다. 정겨운 돌다리 위를 걷는 재미도 솔솔하다.

금오산 올레길



◆ 금오산 올레길(경북 구미시)

이 길이 더욱 특별한 것은 수십만 년 전 화산 활동 흔적으로 가득해서다. 계곡 바닥은 주변 평균 지표면보다 20~30m 낮아 걷는 내내 협곡을 이룬다. 협곡 양쪽 벽으로는 19억 년 전 생성된 '선바위' 편암부터 신생대 제4기(약 55만 년 전)에서 12만 년 전)의 현무암 주상절리까지 다채롭게 펼쳐진다.(연천군청 전략기획팀 031-839-2041)

▷ 경로 : 연천 차탄교~왕림교
▷ 거리 9.9km 소요 4시간 난이도 쉬움

◆ 금오산 저수지 둘레를 걷기 때

문에 오르막길이 없다. 코스도 짧아 남녀노소 누구나 어렵지 않게 걸을 수 있다.

금오랜드 앞 백운교에서 출발해 금오 유선장,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앞, 물 위에 놓인 데크길, 제방길, 물 위에 놓인 데크길, 금오랜드 앞 백운교로 돌아오면 된다.

저수지에 식재된 수련, 물양귀비, 어리연, 부레옥잠 등 수생식물 10여 종을 관찰할 수 있어 사계절 자연 생태 환경 체험로 역할을 톡톡히 한다. 겨울을 이겨내며 봄을 기다리는 수생식물들을 응원하자.(금오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054-480-4604)

▷ 경로 : 금오산 올레길 주차장~올레길 헛터~금오 유선장~금오산 올레길 주차장
▷ 거리 2.3km 소요 1시간30분 난이도 보통

◆ 옥류천 이야기길 1코스 동



축사길 (울산 동구)

울산 동구와 북구 경계에 그리 높지 않은 마골산(麻骨山·297m)이 있다. 험하지 않은 산이어서 동네 사람들이 가벼운 등산을 위해 많이 찾는다.

마골산 동남쪽 골짜기들을 흘러 내린 물이 모여 만든 중심 계곡이 옥류천 계곡이다.

모두 4개 코스로 1코스 동축사길, 2코스 소나무길, 3코스 소망길, 4코스 종주 코스 등으로 나뉜다.

가장 중심이 되는 길이 바로 이 길이다. 옥류천 계곡을 거슬러 오르면 뒤, 873년(신라 진흥왕 34) 진흥왕의 명으로 창건된 천년고찰 동축사를 거쳐 내려오는 길이다.(울산 동구청 관광과 052-209-3363)

▷ 경로 : 옥류천 주차장 입구, 달방골~반터밀골~파고라 윈터, 마골산 갈림길~도토리 약수터~한글짜~임도 능선 갈림길~헬기장 갈림길~동축사~옥류천 주차장 입구
▷ 거리 : 5.5km 소요 2시간30분 난이도 보통

◆ 강화 나들길 7코스 낙조 보러 가는 길(인천 강화군)

무려 20개 코스에 달하는 강화 나들길에서도 '세계 5대 갯벌'로 꼽히는 강화 갯벌의 낙조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화도면 화도초등학교에서 출발해 마나산 출구인 상봉산 일만보길을 따라 능선을 넘으면 광활한 갯벌이 펼쳐진다.

갯벌을 오른쪽으로 끼고 걷는

강화 나들길 7코스 낙조 보러 가는 길



장성호 수변길



길이 하이라이프다. 낙조로 유명한 장화리 일몰 조망지를 지나면 아기자기한 산길을 따라 북일곶만에 닿는다.

돈대에서 바라보는 너른 갯벌과 장봉도, 주문도, 불음도 등의 모습이 일품이다. 강화갯벌센터를 둘러본 뒤 작은 매너미 고개를 넘으면 화도초등학교로 회귀한다.(강화군청 032-930-3114, 강화군 관광개발사업소 032-930-4331)

▷ 경로 : 화도 공영주차장~갯벌센터~미루 돈대~분오리 돈대
▷ 거리 21km 소요 7시간 난이도 보통

◆ 장성호 수변길 (전남 장성군)

장성군을 북에서 남으로 관통하는 강이 영산강의 가지 물줄기인 황룡강이다. 강은 예로부터 장성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물이 맑고 물고기가 많아 천렵이나 소풍 장소로 인기가 많았다.

황룡강을 상류인 장성읍 용강리에서 뱃으로 막아 생긴 호수가 장성호다. 강의 맑고 아름다운 풍광이 사라진 대신 커다란 호수를 얻었다.

장성호에 길이 생겼다. 장성호 선착장부터 북이면 수성마을까지 이어지는 이십 리 호숫가 길이다.

장성호의 골짜기를 따라 큰 오르내림이 없이 유순하게 이어지는 편안한 길에서 가족과 함께 걸기에 그만이다.

술과 호수의 정취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데다, 호수가 가파른

절벽을 따라 운치 있는 수변 나무 데크길(1.23km), 출렁다리 등이 조성돼 연인과 데이트하기에도 좋다.(장성군 문화관광과 061-390-7252, 장성군 재난안전실 061-390-7496)

▷ 경로 : 장성호 제방~장성호 관리소~수변 데크길1~출렁다리 남쪽 입구~출렁다리 북쪽 입구~수변 데크길2~수성마을
▷ 거리 : 7.5km 소요 2시간40분 난이도 보통

◆ 느린 꼬부랑길 1코스 옛이 야기길 (충남 예산군)

이름 그대로 '옛날 옛날 아주 옛날'로 시작하는 옛이야기가 들뜬 담긴 길이다.

1964년부터 30여 년 동안 국어 교과서를 장식한, 형제가 밭중에 물레 벗단을 서로 가져다주다 결국 만난다는 내용의 '의종은 형제'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인 이성만 형제가 이 길이 지나는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에 살았다.

상중리 마을 뒷산인 봉수산 정상에는 임종성이 있다. 660년 7월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패망하자 왕자 풍, 장군 흑치상지 등 백제 유민이 이성에 들어와 660년 8월부터 663년 말까지 3년여 동안 나당연합군에 항거하며 백제 부흥 운동을 펼쳤다. 당시 이를 진압하기 위해 온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배를 묶어뒀다는 이야기가 깃든 나무가 상중리 마을에 있다. (대흥슬로시티 방문자센터 041-331-3727)

▷ 기존 경로 : 슬로시티 방문

자센터~관록재들~봉수산 자연휴양림~대흥 동헌~슬로시티 방문자센터

▷ 변동 경로: 슬로시티 방문자센터~배 맨 나무~봉수산 자연휴양림~대흥 동헌~슬로시티 방문자센터(올 3월 이후 새로운 이정표 설치 예정)

▷ 거리 : 5.1km 소요 1시간30분 난이도 보통

◆ 구불길 4코스 구슬미길(전북 군산시)

총 8개 코스인 구불길 4코스다. 길의 핵심 구간은 자연 생태 탐방 명소인 군산 저수지 연안을 따라 걷는 수변 오솔길이다. 청정 원시림과 같이 잘 보존된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눈 내린 뒤 걷는 대나무 숲 구간은 이곳을 겨울에 걸기 좋은 길로 손꼽게 하는 일등공신이다.

'한국의 슈바이처' 썬턴 이영춘 박사의 흔적도 만나고, 동네 벽화를 통해 소박한 삶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도 있다.

저수지를 한 바퀴 다 걸으려면 5시간 정도 소요하므로 시간에 맞춰 일부 구간만 이용할 수도 있다.(군산시 관광진흥과 063-454-3308)

▷ 경로 : 옥산 맥심석 허브 한증막~우동마을~군산 저수지~옥산면사무소~군산소방서~장군봉~바지런 철쭉 분재원~군산역

▷ 거리 : 18.3km 소요 6시간30분 난이도 보통

▷ 기존 경로 : 슬로시티 방문

뉴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